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청소년기 자녀 진로 지원

Acculturation Strategies of Immigrated Women and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강희경

서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Hee Kyung Kang(khkyung@seoil.ac.kr)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자녀 진로지원 특성과 청소년의 진로 관련 행동의 차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 중 총 1,248사례였다. 분석 결과 첫째,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은 동화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통합, 분리, 주변화의 순서로 나타났다. 둘째,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자녀의 진로지원 특성에서는 부모의 효능감, 진로 관련 행동과 부모의 지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태도와 진로 장벽 인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동화인 경우 부모 효능감, 진로 관련 행동, 부모의 지지, 청소년 자녀의 진로태도와 진로장벽 인식에서 긍정적인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이주 여성 가족 지원을 위한 자료로 의미를 갖는다.

■ 중심어 : |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 | 진로지원 특성 |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 진로관련 행동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of immigrant women and the relationship in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The data were from 2016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1,248 cases. The highest rate was the assimilation followed by integration, separation and marginalization among immigrant women' acculturation strategies. The parenting efficacy, behaviors for career development and parents' support were related with acculturation strategies. The adolescents' career attitudes and perceived career barriers were also related with the acculturation strategies of immigrant mothers. As compared other strategies, assimilation strategy had positive relationships with parenting efficacy, behaviors for career development, parents' support, adolescents' career attitudes and perceived career barriers. This study provided some implications for immigrant families with adolescents.

■ keyword : | Acculturation Strategies of Immigrant Women | Supporting for Career Development |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 Behavior of Career Development |

* 본 논문은 2019년도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9년 11월 22일

수정일자 : 2019년 12월 17일

심사완료일 : 2019년 12월 18일

교신저자 : 강희경, e-mail : khkyung@seoil.ac.kr

I. 서론

통계청의 2018년 인구 주택 총조사[1]에 따르면, 다문화가구는 33만 가구로 일반가구의 1.7%이며, 가구원은 101만 명으로 총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문화가구는 2017년 대비 32만 가구에서 1만 6천 가구가 증가하였고, 가구원은 96만 명에서 5만 명이 증가하였다. 가구 구성별로는 외국인, 즉 결혼이민자와 내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구(35.9%)와 내국인과 귀화한 결혼이민자 가구원으로 구성된 다문화가구(23.1%)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족 증가에 대한 최근 인구 통계 현황[1]은 결혼이주 여성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에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족교육프로그램,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 지원 등 전문적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2]. 서로 다른 문화 배경을 지니고 있는 이주 여성이 한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차이와 생활 습관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가장 먼저 직면하겠지만, 이후 자녀의 출생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부모 역할 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변화하는데,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는 자녀가 정체성과 독립성을 확립하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3]. 구체적으로는 성인기를 준비하는 청소년이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연구[4]에서는 6~24세 자녀를 양육하는 다문화 가족 부모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에 대한 정보 부족(40.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대적으로 진로에 대한 정보 접근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다문화 가족 부모의 현실을 반영한다.

다른 나라로의 이주는 이주민으로 하여금 서로 다른 문화로의 적응을 필요로 한다. 문화적응(acclimation)이란 집단 차원 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적응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5]. 문화적응 유형이나,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이주민의 정신건강[6]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는 것이 실제로 선행 연구들[7-9]을 통하여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모역할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7-12]이 많이 보고되고 있지만,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부모역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개별 가족 구성원은 서로에게 지속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13], 이에 따라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은 자녀 양육 지원의 제반 특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관련 태도와 관련이 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최근까지 이루어진 이주 여성과 청소년기 자녀 지원 관련 연구들[14-17]이 이론적 근거의 제시 없이 이루어진 것이 중요한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 적응 유형 이론[5]과 가족체계이론[13]에 근거하여 청소년기 자녀를 둔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 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지원 특성과 자녀의 진로행동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지원 특성(부모 효능감, 진로 관련 행동, 양육태도, 부모의 지지)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 관련 행동(자녀의 진로태도, 자녀의 진로장벽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의 결과는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 실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 지원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이주와 문화적응 유형

문화적응이란 새로운 문화를 접한 결과 나타난 집단의 문화적 변화를 의미하고, 심리적 문화적응과 적응은 개인의 심리에 일어나는 변화이다. 그러나 심리학에서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지면서 최근에는 문화적응이라는 용어를 집단수준과 개인수준을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18]. 문화적응 유형에 대한 이론을 제시한 Berry[5]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개인수준과 집단수준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집단이 문화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개인의 경험이 같거나 참여의 정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Berry[5]는 이주민의 문화적응 유형을 개인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는데 가치를 두는가의 여부와 이주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치를 두는가의 여부에 따라 통합, 동화 및 분리와 주변화로 분류한다. 통합(integration)이란 이주민이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는 한편, 이주해온 사회의 관계망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동화(assimilation)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고수하지는 않고 다른 문화와의 일상적인 접촉을 추구하는 경우이다. 분리(separation)는 자신의 고유 문화를 지키는 것에 가치를 두고, 다른 문화와의 상호작용을 피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주변화(marginalization)란, 문화적 유지에 관심도 없고, 다른 문화와의 접촉에도 관심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5]. [그림 1]은 문화적응 유형을 보여준다.

		개인의 정체성과 특성을 유지하는데 가치를 두는가?	
		예	아니오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가치를 두는가?	예	통합	동화
	아니오	분리	주변화

그림 1. Berry의 문화적응 유형

적응이란, 환경적 요구에 반응하여 개인 또는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지칭한다. 이주 사회와의 문화적응

에 가치를 두는 통합과 동화 유형은 개인과 새로운 환경의 문화적응 과정에서 '적합성(fit)'이 증가하지만, 분리와 주변화 유형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함께 이주 사회와의 갈등 형태를 보임으로서 '적합성'이 성취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5].

이주민 출생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배경변수와 이주 국가의 다문화 인식과 태도, 이주민 정책 등과 같은 집단수준 요인과 이주민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종교, 이주 국가 언어의 유창성, 성격 특성 등과 같은 개인적 수준 요인은 이주민의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주 기간, 문화적응 유형, 대처 전략, 사회적 지지, 편견과 차별에 대한 사회적 태도 등과 같은 변수들은 문화적응 과정에서 조절 변수로써 작용한다[5].

문화 적응 유형과 캐나다 이주민의 복지 간의 관계를 탐색한 Berry와 Hou[6]의 후속 연구에서는 통합과 동화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분리와 주변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에 있어서는 통합과 분리 집단이 동화와 주변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이주시 연령, 지각된 차별, 실업, 저소득, 난민여부, 성별, 결혼지위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심리사회적 변수 역시 이주민의 생활만족도와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주민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문화적 가치와 생태학적 환경은 다문화가족에게 청소년기 자녀의 가족내의 활동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기는 외부 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부모로부터의 일상적 통제로부터 멀어지며, 발달에 있어 또래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부모는 청소년기 자녀의 사회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실제로 아동기부터의 비효율적인 양육태도는 자녀가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비행친구와 어울릴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동시에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효율적인 양육태도는 비행친구에 대한 동조성을 낮추는 효과를 갖는다[19].

이러한 논의들은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당사자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가족 관계, 구체적으로는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유추를 가능하게 도와준다.

2. 가족체계이론

가족체계이론은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 관련 행동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어 줄 수 있다. 정신분석이론과 그 반동으로 생겨난 이론적 지향은 기본적으로 개인에 초점을 두며 직선적인 인과론에 입각한 세계론을 갖고 있다. 그에 비해 일반체계이론이 가족에 적용되어 정립된 가족체계이론은 기존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하는데 주력한 선형론적 인과론을 반대하며, 가족 전체를 상호 연결된 부분들의 합으로 보고, 가족관계에 대한 순환론적 관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결정론적이고 이원론에 입각한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큰 도전이었다[20].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가족은 개별적인 개인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체계로, 단순히 개별 가족원의 집합체가 아닌 전체성을 가진 생명체로서의 유기체이다. 가족체계는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하나의 전체로서 기능한다[21].

체계로서의 가족은 복잡하고 통합된 전체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개별 가족 구성원은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족은 하위 체계로 구성된 위계적 구조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보다 큰 상위체계, 예를 들면 지역사회 하위체계가 되는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기도 하다[13].

가족체계 내 다양한 하위체계는 상호의존적인 특성을 갖는데, 예를 들면 부부관계와 부모-자녀 관계는 상호의존적인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가족체계이론은 자녀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로서의 가족이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22].

가족체계이론은 외부 변화에 반응하는 가족체계의 재조직화 능력을 주목한다. 즉, 가족은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면 적응할 수 있고, 그 기능을 지속할 수 있다. 이런 적응 과정은 기존의 가족체계를 강화하고 안정화시키기도 하지만, 가족 체계의 기능을 취약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가족 체계의 적응을 유발하는 가족발달 주기상의 전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2].

이러한 관점에서 이주 여성의 새로운 문화로의 적응

은 여성 개인 뿐 아니라 개별 가족원에게도 상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가족체계이론은 이주 여성인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 관련 행동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긍정적인 가족체계 인식이 진로성숙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3].

3.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과 자녀 지원 특성

이주 여성의 자녀 양육에 대한 대부분의 국내 연구들은 영유아기 자녀와 학령기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향을 보인다. Berry[5]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자녀 양육을 보고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므로, 본 절에서는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 양육의 일반적 특성, 그리고 청소년 진로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인 이주 여성의 경우, 문화적응 유형에서 통합과 동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지원 및 사회성 지도가 증가한 반면, 분리와 주변화 수준이 높게 되면 자녀의 학업지원과 사회성 지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역할 효능감을 보고한 이영남[24]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부모역할 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 이주민을 대상으로 실행된 Gassman-Pines와 Skinner[25]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 유형이 통합인 멕시코 이주 여성의 경우,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관련이 있었으며, 다른 문화적응 유형과 비교할 때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적게 나타났다.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기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9]에서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주 여성의 양육 효능감을 매개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녀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8]에서는 중국과 일본 국적 대상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기관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학령기 자녀의 외현화

부적응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내재화 부적응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주 여성의 양육태도가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7]에서는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성취적 양육태도가 진로적응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있어 애정성, 자율성, 합리성 하위요인은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적응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않았다. 부모의 긍정적 진로 관여가 청소년의 진로준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다른 연구[14]에서는 다문화 청소년 부모의 긍정적 진로관여 뿐 아니라 청소년 본인의 진로준비행동이 일반 청소년보다 평균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진로에 대한 긍정적인 관여가 있게 되면 진로준비를 위한 실행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청소년 가족에 비해 부모의 긍정적 관여가 어려운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멘토링 등과 같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준다[14].

이외에도 부모의 지지와 가족의 건강성과 같은 다문화 가족의 일반적인 자녀지원 특성이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발달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부모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는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15], 다문화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지지 역시 진로결정 수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16]. 가족의 건강성도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17]으로 나타나서, 부모 관련 요인이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통하여 이주 여성이 문화 적응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자녀 양육, 진로 지원 등을 포함한 자녀 지원 특성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자녀의 진로 발달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기 자녀를 둔 이주 여성의 문화 적응 유형과 자녀 진로 지원 특성, 나아가서는 자녀의 진로 관련 행동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III.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6]이 2016년 조사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MAPS: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6차년도 자료 중 총 1,248사례이다. MAPS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고 비다문화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특성을 파악하고자 2011년부터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패널을 구축하여 매년 종단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MAPS는 2011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패널이 구축되었으며, 1단계 표본학교 추출은 층화임의추출법을, 2단계에서는 확률비례추출법을 적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조사내용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배경특성, 학교생활영역, 심리사회 적응 영역, 신체발달영역, 부모 자녀 관계 영역, 정책지원 영역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종합적 조사로 이루어진다[26].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N=1,248)

변인	내용	사례수(%)
이주 여성의 출신국가	중국(한족, 기타민족)	88(7.1)
	중국(조선족)	235(18.8)
	베트남	31(2.5)
	필리핀	331(26.5)
	일본	451(36.1)
	태국	49(3.9)
	기타	63(5.0)
이주 여성의 교육수준	중졸이하	135(10.8)
	고졸	582(46.6)
	전문대	326(26.1)
	대졸이상	205(16.5)
가족의 월수입	150만원 이하	280(22.4)
	151~200만원	283(22.7)
	201~300만원	436(37.9)
	301~400만원	172(13.8)
	401만원 이상	77(6.2)
이주 여성의 결혼 지위	결혼	1,156(92.6)
	이혼	37(3.0)
	별거	11(0.9)
	사별	41(3.3)
	동거	3(0.2)
자녀의 성별	남	619(49.6)
	녀	629(50.4)

[표 1]은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이주 여성의 출신 국가 분포를 살펴보면, 일본의 사례가 36.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여주며, 다음으로는 필리핀(26.5%), 중국 조선족(18.8%)의 순서였다. 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중졸을 포함한 고졸 이하가 절반 넘게 차지하였으며, 가족의 월수입은 201~300만원 구간이 37.9%로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의 결혼 지위는 결혼이 대다수(92.6%)를 차지했다.

이주 여성의 평균 연령은 45.56세(SD=5.10, 범위 26~65)였으며, 한국 평균 거주기간은 17.41(SD=3.25, 범위 5.08~30.50)년이었다. 이주 당시 평균 연령은 28.15(SD=4.66, 범위 16.75~48.50)세로 분석되었다. 대상 자녀의 평균 연령은 14.96(SD=0.35, 범위 14~17)세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1.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은 Barry[27]의 EAAM(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를 번안한 뒤 수정하여 사용한 12개의 문항,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576으로 산출되었다.

Berry[5]가 제시한 문화적응 유형 이론에 근거하여,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 유형은 모국문화적응과 한국문화적응 각각의 중점 값인 3.0점보다 모두 높으면 통합, 모국문화적응이 낮고 한국문화적응이 높으면 동화, 모국문화적응이 높고 한국문화적응이 낮으면 분리, 그리고 모국문화적응과 한국문화적응 모두 낮으면 주변화로 분류하였다.

1.2. 이주 여성의 진로지원 특성

이주 여성의 부모 효능감은 Gigaud-Wallston과 Wandersman[28]의 PSOC(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를 번안·수정한 신숙재[29]의 연구를 보완하여 사용한 9문항의 5점 Likert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이주 여성의 부모 효능감이 높음을 보여준다. 문항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Cronbach's α 계수는 .825였다.

이주 여성의 청소년기 진로 관련 행동은 조아라 등[30]의 한국판 부모 진로관련 행동척도(K-PCB)의 지

지, 간섭, 관여부족의 하위요인별 각각 3문항씩 9문항, 4점 Likert 척도를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다만 9번째 문항이 직장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분석에서는 8문항의 응답값으로 적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지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Cronbach's α 계수는 .529였다.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감독'과 '방임'의 양육태도 요인으로 측정하였다. '감독'은 허묘연[30]의 부모양육태도에서 감독 3문항,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방임'의 양육태도는 허묘연[31]의 부모양육태도 중 방치 5문항 및 허묘연[31], 김세원[32]이 구성한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하여 이경상 등[33]이 작성한 문항을 수정한 7문항, 4점 Likert척도가 사용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에서 자녀에 대한 감독이 심하고, 방임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Cronbach's α =.837이었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지지는 김순규[34]의 연구에서 학업에 관한 사회적 지지 문항 중 교육적 지원 및 기대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6문항,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지지와 기대를 많이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884였다.

1.3. 자녀의 진로 행동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행동은 진로태도와 진로장벽 인식으로 측정하였다. 진로태도는 이기학과 한중철[35]이 개발한 진로태도 측정 중 결정성의 문항을 수정·보완한 10문항의 4점 Likert 척도가 사용되었다. Cronbach's α 계수는 .889였다.

진로장벽인식은 이은설[36]의 진로장벽 척도 문항 중 자기이해 부족, 진로 및 직업정보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이 영역에서 각각 3문항씩 총 9문항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Cronbach's α =.905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 문항의 내적 일관성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을 위하여 빈도 및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 분석

과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자녀 진로지원과 진로행동 분석을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적용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

[표 2]는 연구대상자의 문화적응 유형 분포를 보여준다. 가장 높은 분포를 보여준 유형은 동화로 전체 대상자의 44.6%였으며, 다음으로는 통합(28.5%), 분리(17.5%), 주변화(9.3%)의 순서였다.

표 2.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N=1,248)

변인	내용	사례수(%)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	통합	356(28.5)
	동화	557(44.6)
	분리	219(17.5)
	주변화	116(9.3)

2. 문화적응 유형과 자녀의 진로 지원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부모 효능감, 진로 관련 행동, 양육태도 및 부모의 지지 차이 일원배치 분산 분석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의 효능감 평균 점수 분석 결과, 동화(Mean=33.04) > 통합(Mean=32.44) > 주변화(Mean=31.29) > 분리(Mean=30.39)의 순서대로 나타났다. 문화적응 유형 집단에 따른 부모 효능감 점수의 차이 분석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F=19.64, p<.001). Duncan 사후 검증 결과,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이 통합과 동화인 경우, 주변화와 분리 집단보다 부모 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분리 집단 보다 주변화 집단 이주 여성의 부모 효능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표 3.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진로지원 특성 (N=1,248)

변인	내용	사례수	평균(SD)	F값
부모 효능감	통합	356	32.44(4.57)a1)	19.64***
	동화	557	33.04(4.44)a	
	분리	219	30.39(4.40)c	
	주변화	116	31.29(5.31)b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진로관련행동	통합	356	23.99(3.51)ab	3.00*
	동화	557	24.25(3.49)a	
	분리	219	23.68(3.07)ab	
	주변화	116	23.35(3.58)b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통합	356	32.39(4.22)	1.68 (n.s.)
	동화	557	32.73(4.36)	
	분리	219	32.14(3.89)	
	주변화	116	31.98(4.7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지지	통합	356	16.13(2.44)a	4.96**
	동화	557	16.16(2.51)a	
	분리	219	15.50(2.37)b	
	주변화	116	15.63(2.61)b	

n.s=not significant, *p<.05 **p<.01 ***p<.001
 주1) Duncan의 사후검증에 의한 집단화로 같은 문자로 표시된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진로관련 행동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3.00, p<.05), 사후 검증 결과, 동화 집단(Mean=24.25)이 주변화 집단(Mean=23.35)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문화적응 유형이 동화인 어머니 집단의 청소년 자녀들이 주변화 집단의 청소년 자녀들보다 어머니가 진로지원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자녀의 진로 결정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는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지지 차이 분석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4.95, p<.01), 평균 점수의 순서는 동화(Mean=16.16) > 통합(Mean=16.13) > 주변화(Mean=15.63) > 분리(Mean=15.50)의 순서를 보여주었다. 사후검증결과,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통합과 동화인 집단의 청소년들이 분리와 주변화 집단의 청소년들보다 부모로부터 지지와 기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문화적응 유형과 자녀의 진로 행동

자녀의 진로행동은 청소년의 진로태도와 진로장벽 인식으로 분석하였는데,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태도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49, p<.001$). 평균 점수의 분포는 동화(Mean=26.59)>주변화(Mean=26.05)>분리(Mean=25.54)>통합(Mean=24.94)의 순서였다. 사후 검증 결과,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동화와 주변화인 경우 통합 집단보다 청소년의 진로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자녀의 진로 행동 (N=1,248)

변인	내용	사례수	평균(SD)	F값
자녀의 진로태도	통합	356	24.94(5.32)b2)	6.49***
	동화	557	26.59(5.97)a	
	분리	219	25.54(5.59)ab	
	주변화	116	26.05(5.38)a	
자녀의 진로장벽 인식	통합	356	20.15(5.03)a	16.20***
	동화	557	18.07(5.27)b	
	분리	219	20.30(5.21)a	
	주변화	116	19.66(5.38)a	

*** $p<.001$

주2) Duncan의 사후검증에 의한 집단화로 같은 문자로 표시된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진로장벽 인식에 있어서도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F=16.20, p<.001$),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통합(Mean=20.15)과 분리(Mean=20.30), 주변화(Mean=19.66)인 경우 동화(Mean=18.07) 집단보다 진로장벽 인식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Berry[5]의 문화적응 유형 이론과 가족체계이론에 근거하여,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 지원 특성 및 청소년의 진로 행동 차이를 보고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분석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6]이 2016년 조사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6차년도 자료 중 총 1,248 사례였다. 분석 결과 나타난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은 동화(44.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통합(28.5%), 분리(17.5%), 주변화(9.3%)의 순서로 나

타났다. 이는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관련 특성을 보고한 최혜지[37]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최혜지[37]의 연구에서는 주변화가 36.81%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통합(30.43%), 동화(15.07%), 분리(7.68%)의 순서로 나타났다.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실행된 이지연 등[38]의 연구에서도 통합(68.4%)>동화(12.0%)>분리(10.9%)>주변화(8.7%)의 순서로 나타나서 본 연구결과와는 다른 분포를 보여준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한국 거주 기간에서 오는 차이로 설명될 수 있겠다.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평균 거주연수가 17.41(SD=3.25)년인 반면, 최혜지[37]의 연구 대상자는 4.52(SD=3.72)년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지연 등[38]의 연구에서도 연구 대상자의 한국 평균 거주연수가 4.33(SD=4.10)년이고, 중국과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서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혜지[37]의 연구에서도 평균 거주연수가 높을수록 이주 여성들의 문화적응 유형이 동화인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 대상자의 문화적응 유형이 동화가 많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둘째,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자녀의 진로 지원 특성 분석에서는 부모 효능감의 경우, 통합과 동화 집단이 주변화와 분리 집단보다 유의하게 효능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는가를 보여주는 진로지원 행동에서는 동화 집단의 점수가 통합, 분리, 주변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문화적응 보다는 모국문화적응이 높은 수준인 분리와 주변화 집단의 이주 여성이 상대적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음을 감안하면[5],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녀양육 지원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들[10][24]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자녀가 지각한 학업관련 사회적 지지 차이 분석에서는 통합과 동화 집단이 분리와 주변화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 다만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서 선행 연구[25]와는 일치하

지 않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 대상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와 다른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의 차이, 그리고 대상 자녀의 발달 단계의 차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를 감독과 방임의 요인으로 측정하였고, Gassman-Pines과 Skinner[25]의 연구에서는 따뜻한 / 회피적/ 철회적인 양육행동의 차원으로 양육태도를 측정하고 있다. 연구대상 역시 유아기와 학령기 자녀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양육태도의 조작적 정의에 따른 측정과 그 효과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이 통합과 동화인 경우, 분리와 주변화인 경우보다 부모 효능감과 부모의 지지가 높은 수준이라는 본 연구결과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있어 통합과 동화집단이 유리하다는 Berry[5]의 이론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Berry[5]의 문화적응 이론에 의하면, 이주 사회와의 문화 적응에 가치를 두는 통합과 동화유형이 개인과 새로운 환경의 문화 적응 과정에서 적합성(fit)이 증가하지만, 분리와 주변화 유형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함께 이주 사회와의 갈등 양상을 보여서 적합성을 성취하기 어렵다고 본다. 즉,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인 통합과 동화의 대상자들이 청소년기 진입이라는 자녀의 발달 전환 과정에서 요구되는 부모 역할 변화에 대한 적합성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셋째,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진로태도와 진로장벽 인식에 있어서는 모두 유의미한 통계 결과를 보여주었다.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동화와 주변화인 경우 통합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진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 자녀의 진로장벽 인식에 있어서는 통합, 분리, 주변화 집단이 동화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에 있어 통합보다는 동화인 경우 청소년 자녀의 진로태도와 진로장벽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관련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관련 있다는 선행 연구들[8][9][11]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 자녀의 진로 지원 및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 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 체계가 상호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라는 가족체계이론[21]을 지지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청소년 자녀의 진로태도에 있어 문화적응 유형이 주변화인 경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자녀의 진로장벽 인식에 있어 문화적응 유형이 통합인 경우 높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Berry[5]의 이론적 전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결과이다. 이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이주 여성의 한국 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과정에서 한국 거주 기간이라는 변수가 고려되어야 하고, 개인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자녀의 양육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즉,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이 통합과 동화인 경우 자녀의 진로 지원 특성과 청소년의 진로 관련 행동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상대적으로 주변화와 분리의 문화적응 유형 집단에 속하는 이주 여성 대상의 자녀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른 문화와의 상호작용에 관심이 없고, 접촉을 피하는 주변화와 분리 집단 대상에게는 우선적으로 문화 이해와 수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셈이다.

또한 가족발달주기라는 관점에서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지원 체계가 상호작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 진로 지원 개선 방안을 제시한 조혜영[39]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집단 내의 다양성을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족의 소득수준과 경제여건, 거주 기간 등과 개별 청소년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진로 지원이 운영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제한점을 갖고 있다. 먼저 본 연구 설계에 맞도록 구성된 측정도구가 아니고 외국 척도를 수정·번안하여 적용한 관계로 타당도가 검증되지 못하였다.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청소년 자녀의 진로 지원 및 진로 발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변수를 다루지 못한 점도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후속 연구

에서는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이 청소년기 자녀의 진로 발달에 미치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그럼에도 이주 여성과 다문화 청소년 자녀 지원을 위해 실행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이론을 기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본 연구가 Berry[5]의 문화적응 유형 이론과 가족체계이론 [13][20-22]을 적용하였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더불어 이주 여성 대상의 어머니 역할 연구가 주로 영유아가나 학령기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문화적응 유형과의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들은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그에 따른 자녀진로 지원 특성, 그리고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진로 발달 이해를 위한 실제적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이주 여성의 부모 역할 지원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1] 통계청, 2018 인구주택총조사, 2019.
- [2] 이도희, “다문화 가족지원 관련 법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7호, pp.650-658, 2019.
- [3] J. J. Bigner, *Parent-Child Relations-An Introduction to Parenting(7th ed.)*, Pearson Prentice Hall, NJ, 2006.
- [4] 여성가족부,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2019.
- [5] J. W. Berry,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 An International Review*, Vol.46, No.1, pp.5-68, 1997.
- [6] J. W. Berry and F. Hou, “Immigrant Acculturation and Wellbeing in Canada,” *Canadian Psychology*, Vol.57, No.4, pp.254-264, 2016.
- [7] 김명숙, 이미현, “다문화가정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제32권, 제1호, pp.19-34, 2019.
- [8] 오재연, 김경란, 남민우, “출신국적별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양육행동, 삶의 질,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유아의 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제13권, 제1호, pp.293-319, 2014.
- [9] 이래혁, 장혜림,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양육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제66호, pp.65-95, 2019.
- [10] 김만호,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이 자녀교육수행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11] 이지영,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스트레스가 자녀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제17권, 제2호, pp.105-125, 2012.
- [12] 이은경,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자본과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부모양육행동의 구조적 관계,” *열린교육연구*, 제24권, 제1호, pp.333-355, 2016.
- [13] M. J. Cox and B. Paley, “Families as System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48, pp.243-267, 1997.
- [14] 이유경, 류재운, 방홍복, “부모의 긍정적 진로관여가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19권, 제2호, pp.129-154, 2012.
- [15] 신연주, 이경순,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성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 *평생학습사회*, 제15권, 제3호, pp.95-120, 2019.
- [16] 장혜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부모 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을 매개로 진로결정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제47권, pp.189-218, 2019.
- [17] 김민경, “다문화 가족 청소년의 개인문화적 요인, 부모 및 가족 요인과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아시아아동복지연구*, 제12권, 제3호, pp.35-53, 2014.
- [18] 정진경, 양계민, “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제23권, 제1호, pp.101-136, 2004.
- [19] J. R. Eshleman and R. A. Bulcroft, *the Family(12ed.)*, Allyn & Bacon, Boston, MA, 2010.
- [20] 김유숙, 전영주, 김수연, *가족평가 핸드북*, 학지사, 2003.
- [21] M. P. Nicholas and R. C. Schwartz, *가족치료* :

개념과 방법(7판), 시그마프레스(원전은 2005년에 출판), 2008.

[22] M. J. Cox and B. Paley, "Understanding Families as System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12, No.5, pp.193-196, 2003.

[23] 오충광, 최혜윤, "가족체계가 대학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숙도와 대학환경 지각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11호, pp.517-543, 2015.

[24] 이영남,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여성결혼이민자의 부모 역할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백석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25] A. Gassman-Pines and A. T. Skinner, "Psychological Acculturation and Parenting Behaviors in Mexican Immigrant Families," *Journal of Family Issues*, Vol.39, No.5, pp.1139-1164, 2018.

[2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제 1~7차 조사 데이터 유저가이드*, 2018.

[27] D. T. Barry,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Vol.3, Issue 4, pp.193-197, 2001.

[28] J. Gigaud-Wallston and L. Wandersman,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1978.

[29] 신숙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 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30] 조아라, 윤성근, 양은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진로 관련 행동척도(Korean Parental Career-related Behaviors)의 한국판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제10권, 제10호, pp.389-408, 2013.

[31] 허묘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32] 김세원, *사회적 지지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3] 이경상, 김진호, 오해섭, 김희진, *한국청소년패널조사 (KYPS) I-조사개요보고서*,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34] 김순규, *청소년의 학업중퇴 결정 요인-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35] 이기학, 한종철,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제8호, pp.219-255, 1997.

[36] 이은설, *초·중고 여학생 진로장벽 척도의 개발 및 구인 타당도 검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37] 최혜지,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1호, pp.163-194, 2009.

[38] 이지연, 그레이스정, 유조안, "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2권, 제3호, pp.1-15, 2014.

[39] 조혜영, "다문화청소년 진로 지원 개선 방안 모색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7권, 제11호, pp.689-699, 2017.

저 자 소 개

강 희 경(Hee Kyung Kang)

정회원



- 1998년 8월 : 경희대학교 가정학과 (이학박사, 아동학전공)
- 1999년 5월 : University of Texas, Austin, School of Social Work(사회복지학석사)
- 2000년 9월 ~ 현재 : 서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 아동복지, 부모-자녀관계